

4·25 재보선 한나라 참패

오만에 돌아선 민심... 대선정국 '격랑'

4·25 재·보선의 후폭풍이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12월 대선의 풍향계로 평가받은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이 경기 화성 한 곳을 얻는데 그치고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이 각각 무안·신안과 대전 서구를 을 차지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산술적으로 정치세력간 균점구도가 형성된 셈이지만 내용상으로는 17대 총선 이후 독주체제를 구가해온 한나라당의 '재·보선 불패신화'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밤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소인 무안 백제고에서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 종사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무안=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후보 매수·과태료 대납 등 악재 겹쳐 패배 선거패인 지도부 퇴진론·'빅2' 갈등 일 듯

특히 뒷발인 경북 봉화를 비롯, 서울 양천구, 경기 동두천·양평·가평 등 5군데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완패해 충격은 더했다.

한나라당의 패배는 경기 안산의 돈 공천 파문, 대구 서구의 과태료 대납 사건, 경남 거창의 무소속 후보 매수 시도 등 악재와 함께, 한나라당의 오만함에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강재섭 대표 등 지도부 퇴진론으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다.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은 황우여 사무총장과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심재철 홍보 기획본부장이 이날 사표를 제출했고, 나머지 임명직 당직자들도 금명간 사표를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으로 급속히 '솔림 현상'을 보였던 민의의 흐름이 '힘의 균형'을 복원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해지면서 단선적 흐름을 보

이던 대선정국의 유행성과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권가도에 '비상등'이 켜진 한나라당은 선거책임론 후유증이 부상하면서 내홍에 휘말려들 조짐이다. 선거 패인을 놓고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등 대선주자 '빅2'간의 갈등이 떠오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내에선 벌써부터 "이러다가 대선 3수도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반대로 열린우리-민주-국민중심당간 사실상의 '선거연합'을 시도했던 범여권은 '반 한나라당 전선'의 파괴력이 입증됐다는 자평 속에서 제 정파를 아우르는 통합논의에 가일층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국 반전의 기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멸렬하던 범여권 통합 논의에 다시금 '동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 대 반 한나라당 구도 속에서 대선의 축소판으로 치러졌던 대전 서

구을 선거에서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압승한 것은 한나라당의 '대세론'을 뒤집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당장 범여권 안팎에서 거론돼온 '대선주자 연석회'나 제정파간 '원탁회의' 구성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느슨한 형태로나마 제 정파와 주자들을 큰 틀의 '교집합'으로 묶어 반 한나라당 대오의 실체를 구축해 나간다는 시나리오다.

이미 정세권 의장은 '제3지대 후보중심론'을 내세우며 범여권 대선 주자들을 돕기 위한 소속 의원들의 '기획 탈당'까지도 용인한 상태다.

여기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신당 창당 등 정치 행보도 5월 초반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2차 탈당도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은 무안·신안에서 당선된 김홍업 씨를 범여권 통합을 촉구하는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원내대리인'으로 평가하면서 민주당 중심의 통합논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광역의원 (★은 당선자)

광주 남구 1선거구


 강도석(52·무소속) 현인족 통일연구소 이사장	황승국 한나라당 959(6.30%) 이창호 열린우리당 3,901(25.63%) ★강도석 무소속 7,138(46.89%) 오기주 무소속 3,222(21.16%)
--	---

나주 2선거구


 나중석(57·무소속) 나주시의회 의장	니모란 한나라당 383(2.42%) 전준화 민주당 5,254(33.25%) 강상철 무소속 1,631(10.32%) ★나중석 무소속 6,543(41.41%) 박상희 무소속 1,988(12.58%)
--	--

◆기초의원


광주 서구 가선거구

 오상섭(63·민주당) 민주당 광주시장 윤리위원장	정재성(43·민주당) 민주당 서갑 연혁회장
---	-----------------------------------


광주 서구 다선거구

 김복열(43·민주당) 광주금호 청년회소 회장	이병조(34·민주당) 광주시장 부위원장
---	---------------------------------

여수 다선거구

 유우준(51·민주당)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유해숙(45·민주당) 순천청년대 겸임교수
---	----------------------------------

순천 미선거구

 유해숙(45·민주당) 순천청년대 겸임교수

“민주평화세력 통합 이루겠다”

여의도 입성 성공한 DJ 차남 김홍업씨

김대중(DJ) 전 대통령 차남인 홍업씨가 '후광(後光·DJ의 아호) 효과'를 등에 업고 결국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DJ의 장남 김홍업 전 의원에 이어 차남인 김홍업씨까지 고향에서 국회의원 '내물림'을 해야 한다는 싸늘했던 민심을 잠재우고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중앙 정치무대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김 후보 개인적으로는 지난 2003년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옥고를 치렀던 '오점'에서 벗어나 명예회복을 한 셈이기도 하다.

김 후보의 당선은 무엇보다 범여권 통합을 즐기게 강조해온 김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자 자신이 정가에 등장하게 됐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당선자는 당선 확정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아들이 아닌 정치인이자 국회의원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무안·신안 군민들이 보내 주신 신뢰와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안·신안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

라는 엄숙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모든 것을 바쳐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민주평화세력이 다시 통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질문에 "먼저 많은 분을 만나 말씀을 들겠다"면서 "통합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저의 승리를 통해 확인된 만큼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당선자는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나 협의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아버지인 김 전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묻는 질문에는 "아직 통화하지 못했다. 곧 전화드리고 내일 찾아뵙 계획이다"고 대답했다.

김 당선자는 DJ의 정치적 메신저 역할에 대해 "아버지는 정치를 떠난 분이다. 아버지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김홍업으로서 활동하겠다"면서 "잘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충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11전 12기 선거 출마·낙선 전국 최다 강도석씨 광주시의원 당선

선거 출마와 낙선 전국 최다 기록의 소유자 강도석(52·사진 가운데)씨가 12번째 출마 만에 광주시의원(남구 제1선거구)에 당선됐다. 지난 1988년 광주 서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후 낙선 19년만의 승리다.

강 당선자는 3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개표 초반부터 월등히 앞서나가며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다.

강씨의 당선에는 광주 남구지역에서 국회의원, 구청장, 광역의원을 가리지 않고 출마하면서 쌓아올린 높은 인지도가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동정표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 당선자는 지난 88년 남구구 분구되기 전 서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나선 후 91년 시의원, 92년 국회의원, 95년 남구청

장, 96년 국회의원, 97년 남구청장, 99년 남구청장에 무소속으로 각각 출마했다. 그는 또 2000년 국회의원, 2002년 구청장, 2004년 국회의원, 2006년 구청장 후보로 나서서 등 지금까지 무소속으로만 총선 4차례, 지방선거 7차례 등 모두 11번 도전했다가 실패했으나 이번에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강 당선자는 소감을 통해 "수많은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 만큼 광주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해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행정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서중과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한민족통일문제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는 강 당선자는 5권의 시집을 내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ww.ksfrp.com

“기본에 충실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

형식화된 거리시설물의 탈피! 거리환경시설물의 선두주자 (주)금성산업

(주)금성산업은 쾌적하고 참신한 도시환경을 창조하는 금속구조물 업체의 선두주자로서, 특허 및 디자인 등록 등, 다년간의 축적된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도시민의 품위있고 가치있는 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민의 요구에 맞는 최상의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금성산업 대표이사 최병술



(주)금성산업 전남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844 (군서 농공단지)
 Gaum Seong Industrial Co., Ltd. TEL : (061) 473 - 7397 FAX : (061) 471 - 7396

남평테크 분체도장 전문업체 -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545 - 1번지
 NAMPYUNG TECH TEL : (061) 332 - 9990 FAX : (061) 332 - 8652

JIRO Street Furniture Design Team (주)디자인미로
 제품, 환경디자인 전문업체 - 광주광역시 북구 오동동 1110 - 7번지 광주디자인센터 504호실
 TEL : (062) 611 - 5960, 5961, 5962 FAX : (062) 611 - 5969